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제7회 성경암송대회 열린다

10월27일 예선,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를 범위로

매년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올해도 요한 2서와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를 범위로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한다.

부서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11월1일(금)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본선을 갖는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암송하여 천국을 바라는 마음을 키워가기를 기도한다.

이번 대회의 일정은 10월27일(주일) 각 부서별로 예선을 치르며 여기서 선발된 각

오늘 찬양예배시 성경통독자 시상한다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는 흥해작전 기간중인 지난 6월7일(금) 새벽예배 설교 중 전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할 필요를 깨닫게 하시며 성도들의 성경통독을 시작한다고 선언한바 있다. 그리고 4달이 지나 9월에 들어선 지금 각 교구 지도목사들을 통하여 성경통독을 마친 성도들의 명단이 속속 들어오고 있어 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성경통독 시상을 정례화 하여 매월 셋째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시상식을 갖기로 정하고 대상자를 순례자를 통해 공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머그 컵(사진참조) 1set를 드리게 되며 첫 번째로 시상할 하게되는 성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3등 - 김인순 권사(14교구)
- 1등 - 최광례 집사(1교구)
- 이관모 집사(2교구)
- 김성임 집사(3교구)
- 이운진 권사(4교구)
- 박현주 성도(7교구)
- 강재자 권사(8교구)
- 이성애 권사(9교구)
- 김진숙 집사(9교구)
- 이사라 집사(14교구)

평신도 신앙강좌반 새롭게 개강

매주일 오후 1시 601호

모든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평신도 신앙강좌반이 한국교회 인물사(강사:이만열 전도사)와 창조론(강사:김영한 목사)으로 각각 주제를 새롭게 하여 개강했다.

한국교회 인물사는 기독교가 막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시기의 교회 장로를 중심으로 인물탐구를 하는데 이번 강의는 개인의 신앙성장에 큰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침체된 신앙에 새롭게 도전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창조론 전과 동일하게 101호에서 강의한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 지난주 토요일9월14일 대학·청년부 회원들은 한티공원에서 노방전도를 했다.

고등부 고 3학생을 위한 기도회

10월6일(주) 10시 40분 601호실에서

고등부(부장: 오광환 집사)는 오는 11월중 수학능력고사를 치르는 고3학생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고3학생들을 위한 기도회는 극심한 입시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을 주며 가장 힘든 이 기간을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다. 지난 3월17일(주)에 고3학생들과 기도 결연을 맺은 성도들은 이 날 한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학생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한 기도를 하며 좋은 결실을 맺도록 격려하기 바란다.

태신자 명단

권순선 권진범 박 무 유인철 이동찬 이승자 이승운 이은총 이진실 이희진 정이삭 정주울 최정자 하미애 함진영(이상 15명) 다음 호에 계속

금주의 성구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2:19-22)
Consequently,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alien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with Christ Jesus himself as the chief cornerstone.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And in him you to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Ephesians 2:19-22)

소신지서 강해-호세아

사랑의 하나님

(호세아 1장 1 - 27 절)

5년 3개월간 이어지던 이사야서 강해가 끝나고 이번주부터 소신지서강해가 시작된다.

호세아는 유다에 네 사람의 왕 곧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동안 예언 했던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8백년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예언한 기간은 50 - 60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선지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과업을 주시는데 호세아가 받은 과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호세아는 자기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거리의 여인을 아내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남쪽에서 호세아가 예언을 할 때 북쪽에서는 아모스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드고아의 목동 아모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토록 하고, 동시에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동시대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각각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널리, 그리고 크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중운 목사

우리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되 특별히 부도덕한 죄,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심이 아닌 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간음, 불순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흠여졌던 사람이 다시 섬기우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법을 사용했습니다. 나봇은 갈멜산 남쪽 에스트레론 골짜기,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어지는 골짜기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합은 처음에 나봇에게 다른 포도원을 줄테니 그 포도원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나봇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다음에는 돈을 줄테니 팔라고 했고 아합은 이것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왕후 이세벨의 간계를 따라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왕상 21:1-16).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이며 이것을 아합의 후손인 예후의 집에 갇겠다는 것입니다. 예후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5절).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722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재앙이 이스라엘 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전세계에 흠여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변함 없이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는 이렇게 흠여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능력이 없는 백성이 될 것임을 고멜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2)로루하마

고멜이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였고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는 '아니다', '루하마'는 '동정하다, 사랑하다' 라는 뜻으로 '로루하마'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다"(시 100:5).

또한 시편 136편에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무려 26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사

람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주님의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십니다.

(3)로암미

고멜은 세 번째로 아들을 출산하였고 그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므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입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3.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10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흠여신다는 뜻 외에 내가 심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흠여신 백성을 다시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2:1).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점차 국가적 힘이 증가되고 자손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며 흠여졌던 남북이 결합되는 복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전세계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11절).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2:1).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증오의 대상이 되었었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고멜은 결혼한 후에도 남편을 떠나 다시 창녀의 소굴로 돌아갔습니다. 고멜은 불신실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멜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되 특별히 부도덕한 죄,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심이 아닌 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간음, 불순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흠여졌던 사람이 다시 섬기우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불합리한 명령

이 시대는 물질문명주의가 매우 팽배했던 사치한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자유와 헌신을 외치고 있었지만 국가는 평안하여 안녕에 이르러 자기 안락에 빠져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은 물질이 풍부하면 할수록 공허해집니다. 가증한 종교와 부패한 사회상, 문란한 법질서, 특권층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무엇보다 고멜처럼 타락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영육간에 부요해진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열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반복되는 역사가운데 문명의 쇠퇴기를 맞는 국가를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문명과 물질의 혜택을 빠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거리의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고멜이 어떤 종류의 창녀인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이방신전의 창녀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전에 창녀를 데려다놓고 신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고멜은 세상에서도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2.깨어진 하나님의 사랑

(1)이스라엘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흠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실한 백성을 흠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현실화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갇으며"(4절).

악한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갖은 방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유형 무형의 인프라”

- 성도들의 성숙한 봉사의식과 헌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사의 운영, 쾌적하고 훌륭한 시설과 장비 등 ...



지난 1992년 3월 첫 강좌를 개설한 이래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들의 영성 개발과 성장을 돕기 위해 1년에 2학기씩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교회 갱신 연구원의 목회자 신학 세미나는 22학기를 진행중인 현재까지 10년 넘게 이들에게 계속적인 말씀공부와 신학적 지식 체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킴치 세미나와 함께 우리 서울교회의 대표적인 신학프로그램이다.

우리의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지난 21학기 2교시 강사 중 한 분이 강의 서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세미나인줄은 미처 몰랐다”고 토로할 정도로 그 참여인원과 열기는 대단하다.

실제로 년 수강인원이 만 여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고 하니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대략 어림짐작으로도 매주 5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대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목회자들의 안내, 강의교재의 인쇄와 제본은 물론 식사준비와 배식, 주차안내 및 차량관리, 등록 접수, 차 대접, 테이프저적 판매 및 관리, 강의실 청소와 정리, 방송실 점검 등 곳곳에서 봉사자들의 크고 작은 수고와 헌신에 의해 모든 순서가 진행되고 관리된다.

그렇다면 오로지 성도들의 봉사만으로도 매주 차질 없이 이 큰 행사를 치루어 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매주 수 백 명이 모이는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진행과 지원을 위해 세미나 시작 2개월 전에 봉사단이 구성되며 기획에서 홍보까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세밀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일차별로 또 행사 당일 시간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각

요 소
요소의
인 원
배 치와
운 용
계 획
등 목
회 자



신학세미나 봉사단의 치밀함과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또한 우리 교회의 일관성 있는 목회 철학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비단 목회자 신학세미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오랜 기간 연구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시행되어 왔으며, 일단 시작된 프로그램들은 일관되게 진행된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뢰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네트워크와 조직에서 파생되는 강력한 힘이 집중되어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또 다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까 세미나가 열리는 월요일, 세미나장 안팎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며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들이 보여 주는 환한 미소에서 우리 교회의 저력과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반은 단단하고, 성도들은 저마다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다...!!!

김시환 (편집부)

다락방 사례

임옥근 집사(1교구)

먼저 부족한 저를 다락방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1-3 다락방은 은마 아파트 21~31동까지 거주하는 남자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9명 정도입니다. 다락방 예배 참석인원은 남자 10여명에 부인까지 합하면 20여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위치한 은마 아파트는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에 입당한 후 100여 가정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열심 있으신 부다락방장과 권찰을 세워 주심으로 함께 다락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다락방장은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다락방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찾아다니고, 성령 충만한 권찰은 열심히 전화해서 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십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하나가 옆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을 받게 합니다.

우리 다락방은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권찰이 조화롭게 업무분담을 하고 서로 확인함으로써 모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다락방장과 권찰이 수고하여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다락방장의 준비가 소홀하면 안 되겠다 싶어 많은 주석과 핸드북 사전 등을 참고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많아 항상 죄송스럽습니다. 또한 질문 중 모르는 사항은 메모 하였다가 다음시간에 꼭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다락방이 잘 모이는 이유는 책임을 맡은 이들뿐 아니라 다락방 식구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돕는 아름다운 마음들 때문입니다.

이정연 집사(12교구 9다락방)

12교구 9다락방은 용인과 수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12교구는 교회와 거리는 상당히 멀지만 작년부터 이사는 오는 가정이 늘어나 모두 9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저희 9다락방(다락방장: 이인선 권사)은 6가정이며 매주 목요일 저녁식사를 마친 후 8시 3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이처럼 저녁에 모임을 갖는 이유는 남자분들의 참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남자분들이 이 뜻을 잘 받아 저희 다락방은 남자분들의 출석률이 아주 좋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해서도, 지방으로 출장을 가셨다가도 시간을 맞춰 급히 오시며 이 모임에 오시기를 모두가 즐거워하십니다.

이처럼 저희 다락방의 가장 큰 자랑은 잘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이유는 늘 좋은 꼴을 준비하시는 김광신 장로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냉철하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어느 때는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쫓림과 도전을 받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도전은 성경 읽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150장을 읽은 분도 계시답니다.

봄에는 꽃바람회도 함께 가고 지난번 월드컵 때는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한 가정에 모두 모여 함께 관전하며 같이 울고 웃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정이 넘치는 이 다락방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여 부흥하고 발전하는 다락방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김재경(대학부)

서울교회를 다닌 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저를 1년 전 그때 찾아주셨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을 항상 그릴 수 있었고,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에도 무난히 입학하여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보내고 평탄한 길만을 걸어오다가 고 3 내내 준비하던 수시에 떨어졌을 때, 정말 절망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수시에 떨어지고 수능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는 정말 초조하기만 했습니다. 친구, 가족, 선생님... 저를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의지해 보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그때 제일 중요한 분, 저를 도와주실 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찾던 중 미술을 하는 저는 다른 교회와는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세워진 서울교회로 발걸음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온 셈입니다. 혼자인 것이 몹시 서먹했지만 용기를 내고 예배를 드렸던 그 첫 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편안함은 제 일생 동안 두고두고 생각날 것입니다.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은 한 주일 동안 제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 후로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서 재수를 하는 중입니다. 어쩌면 일년 전 그때 보다 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재수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년 더 공부하게 된 것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있는 평야를 지나면 언젠가는 젓과 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수능이 불과 2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루빨리 가족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교회에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고등부는 고3과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0월 6일(주)에 가집 예정입니다. 이들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길가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열매를 따는 아주머니들을 보니 진정 가을이 실감난다. 반갑지 않은 손님 루사가 다녀간 후 선선한 바람이 완연하다.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인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꾸민 찬양제는 그들의 모습처럼 앙증맞고 사랑스러웠다. 예배로 시작된 작은 순례자의 합창. 이종윤 목사님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경에 그 사실이 써있다는 것은 위대한 신학의 집대성이다. 비록 어릴지라도 예수님 사랑의 놀라운 진리를 알고 진정한 기쁨으로 노래하자"는 말씀을 주셨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선생님들과 더불어 오랫동안 준비한 모습이 역력하다. 저마다 받은 은사를 따라 노래면 노래, 연극이면 연극, 그리고 악기 연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1993년 제 1회 작은 순례자의 합창을 기획했던 조대영 전도사님은 "이야기는 오래 기억되지 않으나 노래로 배운 성경은 평생 저들의 영의 양식이다. 결국로 갔던 아이들도 찬양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당시 초등부 찬양대 지휘자로 있으면서 아이들이 1년간 불렀던 찬양을 모아 발표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작은 순례자의 합창



것이 벌써 올해로 7회를 맞게 되었다. 전통을 이어가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한다.

우리는 주안의 한가족이라는 뮤지컬에서 말쑥꾸러기 친구를 주님께 인도하는 모습, 사랑과 기쁨과 전도의 세 테마로 나누어 때로는 후배들과, 때로는 선배들과 함께 노래하고 교사와 학부모들까지 참여한 이 날은 저들의 노래처럼 오히려 데이(Oh happy day)였다.

"찬양은 아이들의 꿈이고 미래고 비전이다. 각박한 세상이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아이들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이다"고 초등부 신미숙 목사님은 말씀한다.

수개월간의 준비와 이날 치킨과 자장면 파티까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교사들, 후원해주신 성도여러분께 감사를 전하는 오정수 부장 장로님은 내년부터는 교육1국 전체가 참여하는 찬양의 축제를 기획한다며 "오늘은 아이들 평생에 좋은 추억으로 자리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찬양제는 아이들 신앙의 주춧돌이 될 것이며 이런 일련의 행사들이 전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육부서가 후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인다. 허숙 (편집부)



만나홀로 오세요



서울교회의 스카이라운지, 8층 식당에 들어서면 양면으로 시원하게 트인 유리창으로 대치동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반가운 얼굴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삼삼오오 즐거운 식사가 있는 곳!

서울교회의 식당은 지난 10년간 자원봉사자들로만 꾸려져 왔다. 교인들이 늘어가고 예배당을 옮긴 후에도 봉사자들의 섬김의 손길이 소리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여전도회에서 김치를 담그고,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2시까지의 식사시간이면 빼짐없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설거지를 도맡으시는 분들이 계시다.

특히 무거운 쓰레기를 치워주시거나 식당 정리를 앞장서 주시는 새가족분들은 식당의 보이지 않는 숨은 일꾼들이시다. 성도들의 주일 식사는 교회의 재정이 아니라 장례 및 생신 등의 대소사와 감사할 제목이 있는 가정의 섬김으로 제공되는데, 52주 일년 내내 주방 유리창 앞에는 이들 가정의 감사제목과 이름이 함께 게시된다. 찬은 없지만 집에서 준비하듯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성도들의 식탁을 준비

비한다는 식당은 요즘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앉았던 의자 밀어 넣기 운동!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식당 봉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은 성도들의 호응에 힘입어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남은 음식물은 모두 폐기되는 관계로 조금씩 담아놓은 김치가 간혹 부족할 때에는 언제든지 더 요청해 주시면 된다. 김치 더 먹기 운동!이다. 동시에 음식 안 남기기 운동, 쓴물건 제자리 놓기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큰 사고 한번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사랑이 오고가는 오늘의 식당이 있기까지 식당 봉사자들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으시다. 맛있게 드셔주시는 성도님들과, 매주일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의 수고와, 크고 작은 교회행사가 식당을 통해 아름답게 치러지는 것들이 모두 감사의 제목이다. 얼마 전 로잔 대회기간에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어우러져 서로 순종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험을 하셨다는 데,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손길을 축복하고 채우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셨다고 한다.

주일에는 전일 개방되는 식당은 성도들의 주일 식사 외에도 주부대학과 경로대학, 목회자 세미나 및 교구, 전도회 모임, 결혼피로연 등을 위해 수시로 개방되고 있다. 그만큼 돕는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많은 분들이 주방을 찾아오시지만, 오래 정박하지 못하고 자주 비껴신다. 일이 고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일이 쌓여 있기에 더욱 그

렇다. 자신의 부엌을 돌보듯 주방을 살피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수고가 더욱 감사한 이와 같은 이유와 다르지 않다. 특히 식사시간이 끝나는 주일 오후 2시 이후부터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 이 시간이면 손이 많이 모자라 늘 눈코 뜰 새가 없다고 한다. 설거지와 수저, 접 정리 등 작은 손길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이곳을 노크해 보시길!

나소정(편집부)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6일 장로교 정체성 위원회 월례 세미나를 주관한다.

☞ 금주의 식사제공: 최정대집사 · 이영순 집사 (개업감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2. 서울성경대학 · 주부대학 · 살롬경로대학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수재민들에게 위로와 회복 그리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